국제 곡물시장의 환경변화와 국내 사료업계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김 치 영

◎ 강경과 유화의 대응

지난 8월 20일 대만 옥수수 수입 공동 위원회(Maize import joint Committee)의 린 쿤 충회장은 대만을 방문한 22명의 미사료곡물협회 대표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의 옥수수 재배 업자들이 미의회의 보호무역주의를 지지 한다면 그 보복으로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중단한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같은 날 한국 정부는 대미 흑자로 인한 미국측과의 통상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출입링크제를 통해 가능한 원유, 석탄, 곡물등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똑같은 현상을 놓고 대처하는 두 나라의 자세가 어쩌면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가에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똑같은 미국 곡물의 수입국 이면서도 대만은 미국의 대표단들에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입장설명」이 없는 한 향후 5년동안 1천8백70만톤의 미국산 옥수수 및 보리, 밀등을 수입키로하는 장기 공급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앞으로 미국 곡물등의 수입을 좀 더 늘려나 갈테니 더몬드 법안과 같은 무역보복을 견우워 달라는 유화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수년동안 우리나라가 수입 곡종의 다양화와 수입선의 다변화 시책을 전개해 나가며 세계 각국의 값싼 사료용 곡물을 사들이고 있었음에도 대만은 대만 특유의 정치적 카드로서 이용하기 위해 일본계 종합상사들에겐 곡물 입찰참가 자격권까지 박탈해가며 미국산 곡물을 수입해 왔다. 이와같은 연유로 인해 지난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4억 달러어치의 옥수수를 수입해 온데 반해, 한국은 이것의 절반도 채 안되는 1억5천불 남짓되는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해 왔고, 그나마 금년에는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더욱 줄어들었다.

결국 대만이 값비싼 미산 옥수수를 수입해준 댓가로 목청에 힘을 돋우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값싼 제3국산 사료용 곡물을 수입해 오면서 엄청난 외화를 절약한 댓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는 방어용 무기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같은 미국산 곡물수입을 둘러싼 대만의 초강경 자세와 한국의 유화책이 최근 세계의 곡창인 미국의 고민과 주변 곡물시장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최근 수년동안 세계곡물시장은 미국이 독주해 오던 시대에서 벗어나 점차 다국화 현상을 보여 과거 수입국 이었던 중공, EC등이 수출국으로 돌변 했는가하면,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등도 자국 농산물의 시장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전개해왔다. 특히 태국, 중공등 동남아 국가들의 저가침투전략은 아주 위협적이어서 미산 옥수수와의 가격 갭을 크게는 20불이상 두어가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을 완전히 맥을 못추게 만들었고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가격 선도자 (price leder)로서의 역활을 상실케 했다. 이때문에 국제 곡물시장의 시세를 주도하며 국제 곡물거래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혀온 시카고 곡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의 가격 조절기능이 무력해 졌고, 오히려 태국과 중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수집만이 값 싼 구매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 되기까지 했다.

이같은 상황하 에서도 현지구매, 장기공급 계약등을 통해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계속해오던 대만으로서는 은근히 한국의 값싼 구매에 자극을 받아 오던중, 미의회에서 더먼드 법안등 이상정되자 마침내 미국에서 곡물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기에 이르른 것이다.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곡물파동과 식량 무기화를 우려해가며 비상사태시 우선적인 안정 공급을 보장받기위해 자발적으로 미국과 곡물 협정을 체결해 오던 대만이 이제는 미국으로 부터 더이상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할 만큼 국제 곡물시장은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전환 되어가고 있다.

◎ 풍요속의 고민

그렇다면 과연 최근의 미국 농업사정은 어느 상태에 까지 와있는가. 한때 잉여농산물로 대표되던 미국의 농산물이 몇차례 오일쇽크와 식량 파동을 경험하면서 세계 시장지배를 위한 전략 물자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으나 잇단 미국의 금수조치(Embargo)와 감산정책(reduction program)의 남발로 인해 여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을 자극시켜 결국은 국제 곡물시장을 공급 과잉시장으로 인도했고 미국의 곡물은 다시 미농정의 골칫거리로 남게되었다.

한때 미국의 국제무역 수지를 흑자로 이끌어 오던 미국의 곡물 교역이 금년부터는 농산물입초현상마저 빚게 되었고, 여기 저기서 미국 농업은행의 도산사태가 발생 하는가 하면, 농촌을 떠나는 이농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과거 세계제일의 곡물 수출국으로서 누리던 미국의 영예를 되찾기위해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을 더욱 떨어트릴 것이라는 입장을 공언하고 있다. 즉 그동안 미국 농정의 지주를 형성해오던 대부율(Loan Rate), 목표가격(Tarket Price), 감산정책(Reduction Program) 등을 단계적으로 철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주요곡물 시세는 그동안 막대한 재고누중과 수출물량 감소등으로 인해 지난 10년이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현재의 미산 옥수수 시세는 C&F 톤당 평균 수입가격이 160~170불이던 80년~81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미산 옥수수 시세가 대 폭락을 맞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재고누중과 수출물량감소 말고도 금년도 수확될 옥수수 역시 지난해에 이어 대풍작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옥수수의 경우 사상 유례 없는 대풍작을 기록하여 2억2500 만톤을 생산했으나 수출은 크게 부진하여 재고량이 누증되고 있는데 금년도 역시 작황 호조로 인해 2억1100만톤 생산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세하락이 가속되고 있다.

8월11일 미농무성(USDA)에서 분석한 미국 콘밸트지역의 옥수수 생육상황을 보면 현재 한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조지아주와 노오쓰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밸트지역들이 보통(Fair) 이상의 양호한 (Good, Excellent)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8월10일 현재 콘밸트 17개주의 옥수수 생육단계는 액상의 유액이 서서히 부드러운 고형질로 변화되어가는 Dough-Stage에 54%가 들어가 있고 이는 지난해의 48%에 비해 앞서고 있다. 그리고 Dough-Stage에서 딱딱하게 변화되어가는 Dent-Stage에 들어있는 옥수수 역시 20%로 지난해 같은날의 14%에 비해 양호한 실정이

다. 결국 미국산 옥수수 작황은 지난해에 이어 대풍작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를 반영한 옥수수 시세 역시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산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련의 구매 동향으로 어느 때 어느 만큼의 구매가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옥수수 재고가 워낙 크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즉 현재 미국의 재고수준을 보면 사상 최고수준인 1억194만톤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 수요가 한계수준에 와있고, 수출수요 역시 타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밀려 급격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타개책이 없는 한, 재고누증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불붙는 곡물전쟁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 책으로 최근 미국의회는 미산 옥수수의 대해서도 수출 보너스계획(Export Bonus Program)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교정책 및 국제 공정거래 질서등의 문제로 인해 옥수수에 대한 확대적용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EEC지역이 수출 장려정책으로 자국내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불해 가면서 미국시장을 잠식해오는데 반발하여 EEC와 수출경합을 보이고 있는 알제리에 미산 소맥을 수출하는 Exporter들에게 현물로 보너스를 지불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구매자중 하나인 소련은 미국이 특정지역에만 Export Bonus를 지불하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고, 이에대해 미국에서는 지난 8월 4일 소련에 대한 소맥판매에 대해서도 톤당 13불 수준의 Export Bonus를 지불할 것을 결정 발표하였다. 현재 소련은 미소 곡물협정에 따라 한해 옥수수와 소맥을 합쳐 800만톤의 구매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나, 옥수수의 경우 680만톤이상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으면서도 소맥은 15만톤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은 소련에 대한 소맥 수출시 Export Bonus의 적용을 약속하면서 미소 곡물협정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Export Bonus Program의 적용으로 인해 소련의 소맥 구매가 자극을 받아 수출량이 증가될 것인지는 의문시 되고 있으며, 만일 수출이 증가 한다하더라도 물량면에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는 옥수수에 대해서도 보너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소련에 대한 소맥 수출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과 곡물수출 경쟁국인 카나다, EC, 호주등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등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의 사료용 곡물 덤핑수출 행위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호주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호주에 있는 미국기지의 존속문제를 재고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을 당할 때에는 어떠한 조처도 불사한다는 냉엄한 생존경쟁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고있다.

현재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옥수수 수출국은 태국과 중공으로 급격한 미산 옥수수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있다.

금년도 태국의 옥수수 사정은 태국 중앙부지역의 한발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수확이 크게 감소 하였는데, 즉 지난 7월에 발표된 현지 Report(제1회 수확 예상)에 따르면 금년도 태국산 옥수수 생산량은 390만톤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생산량의 상향조정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420만톤 수준에는 못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태국산 옥수수의 제1회 수확 예상량이 450만톤, 최종 수확 예상량이 505만

톤 (실제로는 520만톤 정도로 추정됨)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같은 태국산 옥수수의 대폭적인 감산과 미산 옥수수 시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금년 10월 일본이 태국과 내년 1월 선적이후의 옥수수를 대상으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가격 결정은 둘러싸고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한편 중공은 강우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금년도 생산량은 약 7,200만톤으로 약 12.5%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과 마찬가지로 중공 역시 후반기(11월 ~ 4월선적) 장기 공급 계약을 일본과 8월중순경에 교섭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미산 옥수수 시세의 급락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이 두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입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원화 절상과 사료곡물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호전과 더불어 또 하나의 호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원화절상이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대해 환율전을 포고한 이후 8월들어 원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올라 금년중 약 1%에 육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8월20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8백81원60전으로 올들어 대미 달러에 비해 0, 9 6% (8원60전) 가절상된 것이다.

외화 전문가들은 최근에 달러 환율 추이를 볼 때 앞으로 연말까지 원화는 대미달러에 대해 5%정도 평가 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론적인 면에서 원화정상(환율인하)의 효과를 보면 수출 대금으로 받는 외화의 원화 표시 금액이 줄어들어 국내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약화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역으로 수입시에는 원화로 표시한 수입원자재 가격이 환율 인하분 만큼 떨어지게 되어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원화절상이 진전될 경우 산업별로도 수출 및 수입의 비중에 따라 원화의 평가절상이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무역, 조선, 섬유, 전자업종은 수출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나 내수 위주인 식료품, 제약, 제지, 그리고 사료산업, 축산업등은 오히려 원가 절감 효과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 해오며 전량 내수 판매에만 의존하는 사료 산업은 크게 유리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금결재 역시 달러 강세때 주로 이용하던 At Sight 보다는 Usance가 유리해지며,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고 사후에 물량인도시 자금을 결재하는 장기구매계약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구매방식은 지난해 일본종합 상사들이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 취했던 구매방식의 하나다. 그러나 이와같은 장기공급 계약의 체결에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정보수집과 정확한 시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무튼 국내 사료업계에서도 벌써 원화절상에 대비한 업계의 움직임이 부산한 가운데 지난해 까지 만해도 찬밥대우를 받던 CCC자금 신청이 쇄도할 전망이다.

이제 국제공물 시장은 3저아닌 5호 시대에 진입해있다. 미국의 풍작이 그렇고, 타수출국의 덤핑 경쟁과 오일시세의 하락, 선임의 하락등이 우리에게 호기일 수 밖에 없고, 원화절상 역시 사료업계로선 유리한 변수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락만을 기대할 수 없듯이 이제는 오르막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같다. 치열한 판매 경쟁속에 덤핑을 예사로 하는 사료업계와 날로 비대해져 가는 국내 축산업계를 생각할 때 앞으로 머지않아 삼저아닌 삼고가 몰고올 충격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몇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